社 說

재도 공무원 연찬회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포천을 고향으로 둔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포천시가 경기도청,경기도경찰청,농협경기도지역본부,경기도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포천출신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포천시정 현황도 설명하고 함께 체육행사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만찬을 통해 속내를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내 포천출신 공무원 모임이 조직돼 있으며 80여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중 50여명이 지난 23일 포천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포천시 간부공무원과 언론인들과 우의를 다졌다.

포천출신 공무원들이 소위 말하는 상급부서에 다수 포진돼 있는 것은 이 지역출신으로 6선 국회의원인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다. 보다 넓은 데서 근무하면서 안목을 넓히고 포천발전을 위해 한 몫 하라는 뜻에서 경기도로 전출을 보내게 된 것이다. 물론 재도 공무원 모두가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

포천지역 발전을 위해 상급부서에 포천 출신 공무원이 포진시켰다는 사실은 그만큼 포천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다.

이 역할을 나름대로 감당했던 포천 출신 공무원들이 이날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포천시가 이들을 초청하기는 처음으로 알려져 있어 그 의미 또한 새롭게 다가왔다.

그러나 이날 만남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기에도 바쁜 일정이었다. 재도 공무원들과의 교류를 통한 포천시 발전 전략 구상을 위해서는 정례적인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포천시 발전의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모두 고향이 같다는 동질감을 바탕으로 포천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면 포천시가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이날 만찬장에서 보여준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포천시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만찬장에서는 포천시장을 중심으로 재도 공무원과 포천시 공무원등이 한데 어울려 합창을 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울려퍼진 합창이 포천 발전을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는 그냥 스쳐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내실 있게 현안사항에 대해 각자 분야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면 분명 멋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경기도청과 포천시청, 경기도경찰청과 포천경찰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포천교육청,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포천지부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포천의 이야기를 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경기도에 근무하는 포천출신 공무원들은 포천시청 공무원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경기도경찰청에 근무하는 포천출신 공무원들은 포천지역이 갈수록 도시화됨에 따라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과 포천교육청,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포천지부와의 유기적인 관계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本紙 재창간 4주년 기념식

"밝고 투명한 포천사회 건설 위해 노력"

최호열 본지발행인이 재창간 4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본지 재창간 4주년 기념식이 지난 25일 오후5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최호열 발행인을 비롯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민의례와 경과보고 발행인 기념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재창간 이후 기념일마다 조촐하게 진행해온 것처럼 조촐하게 진행됐다.

최두열 전무이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생명예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지역신문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호열 발행인은 기념사를 통해 "포천 지역사회를 밝고 투명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며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주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출발한 것이 벌써 4년째를 맞게 되었다"고 회고 했다.

특히 최호열 발행인은 "유료독자 1만명,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1만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본지는 1990년1월15일 창간되었으며 2000년 10월25일 재창간호를(140호) 발행한 이후 매 10일마다 정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지난 10월20일 제284호를 창간4주년 기념 특집호로 제작했다. 본지는 '主人意識'과 '正論直筆', '文化暢達'을 社訓으로 삼고 '언제나 바른뉴스'를 사시 삼아 올곧은 신문제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대한적십자 포천지구협의회 회원이 장애우의 식사를 도와주고 있다.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버려요

제3회 장애우와 함께하는 놀이마당

21일 포천실내체육관에서는 대한적십자 포천지구협의회(회장 연효숙)가 주최한 '제3회 장애우와 함께 하는 놀이마당'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재가장애우 90여명과 보호자 50여명, 대한적십자 포천지구협의회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만찬과 놀이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만찬은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에서 지원해준 취사차량을 이용한 음식 등으로 제공되었고, 놀이마당을 통해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행사는 좋은날 이벤트의 레크레이션과 의정부 은행나무봉사회 진미희 총무의 풍선만들기, 포천시자원봉사센터의 페이스페인팅, 방경옥 외 12명의 스포츠댄스, 기타동아리 소리여울의 연주, 김정옥 외 12명의 사물놀이 등 장애우와 어우러짐의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연효숙 회장은 "사회에서 소외되어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 장애우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주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봉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재가 장애우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당 경기도당 당원협의회 내년1월말까지 구성키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원특위 조직 구성절차 책임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지난 26일 당원들의 자발적 지역조직인 당원협의회를 내년 1월말까지 도내 31개 시·군별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원협의회는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과거 지구당과는 달리 회장과 운영위원 등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운영비도 당비나 참가비로 대신하는 자발적 참여조직이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이같은 협의회 구성을 위해 당헌당규를 다듬고, 도내 4개 권역별로 동부 문학진 의원, 서부 유시민 의원, 남부 이기우 의원, 북부 이철우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지원특위를 조직했다.

또 다음달 말까지는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내년 1월 중 각 시·군별 당원대회를 열어 당원협의회장 선출 등 협의회 구성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유시민 도당위원장은 "당원협의회 구성은 제 2창당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도당은 정해진 일정내에 민주적인 절차로 당원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제13차 임원회의

신임 최윤섭 자문위원 위촉 승인 및 송년의 날 행사 결의

본지자문위원회 제13차 임원회의가 지난 20일에 양주승자문위장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포천신문 자문위원회(위원장 양주승) 제13차 임원회의가 20일 12시 관내 모 음식점에서 양주승 자문위원장과 조대행 부위원장을 비롯 최호열 발행인, 김인만 고문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양주승 자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월10일 외국인 가족한마당 행사에서 포천신문이 보여준 열의과 성의에 포천로타리안을 대표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포천신문이 더욱 더 지역사회 봉사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하며 자문위원회도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여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호열 발행인은 "모두 37분의 자문위원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포천신문이 정론지로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고개숙여 감사드린다"며 "포천시가 밝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때 많은 자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임원회의는 제12차 임원회의 회의록 보고 및 승인의 건과 신규 자문위원 위촉 승인에 관한 건, 2004년 송년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건, 2004년 포천신문 합동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참석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신규 자문위원으로 최윤섭 국전 입선 작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승인했으며 2004년 송년의 날 행사를 관내 양로원 및 비인가 시설 1곳을 선정해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또 오는 12월17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포천용정결혼회관 지하 연회장에서 개최되는 2004 포천신문 송년의 밤 행사 전 자문위원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키로 결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은 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학생명예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회 위원과 포천신문 임직원 등 200여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는 처음으로 최초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솔선수범 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자문위원들은 송년의 밤 행사에 자문위원중 각 기관·단체장으로서 기관·단체장의 이름으로 시상하자고 의결하기도 했다.

조대행 자문위원(동남고 교장)은 "최근 관내 6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 하는 중학생 및 학부모들이 많다"며 "포천신문이 이를 적절하게 보도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성 자문위원은 "제8회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하루 2만여명이 몰려들어 산이 온통 악취로 진동하고 있으나 화장실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태양열을 이용해 공중으로 건조되는 시스템을 갖춘 화장실을 설치하면 좋을 것"이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에 즈음해 마련된 회의로서 포천신문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비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정치활동 동향

이철우 국회의원은 20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임업정책에 대해 50.6%가 '잘 못하는 편이다'를, 16.9%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됐다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28일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경기불황으로 연탄소비가 늘고있는 요즈음, 사랑을 담은 연탄이 이웃들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며 새마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대종 포천시의회의장은 26일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4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및 사랑의 효 편지쓰기 예선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학생들을 표창하고 청소년의 독서증진 및 효에 대해 강조했다.

오병익 경기도의회경제투자위원장은 27일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 연합회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열린 "2004 서울국제가구 및 목공기계전시회에 참석해 주요전시품목인 가구류, 목공기계, 원부자재 등을 둘러보았다.

이상만 경기도의회의원은 21일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 11명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교육전반에 관한 토의를 갖고 2005년 교육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중효 포천시의회의원은 27일 군내면 하성북리의 장애인 주간보호 및 공동생활가정인 곰두리 두레마을 개소식에 참석해 외부 및 내부시설을 둘러본 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홍성훈 포천시의회의원은 27일 도리돌 한방마을 슬로푸드 체험관 준공식에 참석해 도리돌한방마을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촌관광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강림 포천시의회의원은 22일 포천동 백자타운빌아파트에서 개최된 노인정 현판식에 참석해 노인들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노인정 운영을 위해 아파트입주민들 및 관계자들에게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덕 포천시의회의원은 29일 일동면 모 음식점에서 개최된 일동면 송전탑 건설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석 송전탑건설에 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에게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칼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김 종 용
포천시의회 의원

사회발전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 역시 가만히 문제해결을 못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한참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하여 지역문제를 지방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정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영화를 통한 민간지식의 이용, 민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제고 등이 그것이다. 동시에 그 지역사회 구성원의 신뢰와 협동에 의한 지역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즉 정부가 지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기서 개인의 행복에 필요한 몇 가지 기본조건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역주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정도의 개인 각자가 수입과 경제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도로, 항만, 학교, 교량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지역주민들간의 신뢰와 협동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하고 구성원들 간에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자본이라 표현되는 지역사회의 규범과 신뢰,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는 인적, 물적 자본과 달리 보이지는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 그 지역사회가 얼마나 살만한 곳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자본이 형성된 사회에서는 지역주민 생활이 풍요로와지고 개인의 행복이 증진되며 각종 불필요한 비용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노력이 있다면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하고 주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제반 문제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지역사회발전이 어렵다. 실제로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움직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능력 부족을 보조할 뿐 아니라 지역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과 믿음이 넘치는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 행복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지혜 또는 희생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또는 우리 후손을 위해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역주민이 동참할 것이고, 다음 세대 역시 지역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노력이 발전되면 언젠가 우리가 늙고 병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다음세대로부터 그와 같은 봉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봉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가족 또는 친지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협력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증가시키며,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노력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자신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복추구권의 행사이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서로 비판할 것은 하고, 제시할 것은 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원들을 움직이고, 같이 협력하면 우리지역은 잘 사는 곳, 그리고 행복한 곳이 될 것이다.

앞으로 사회발전과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외부의 변화, 즉 상황의 변화라 무시하고는 우리의 위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환경의 변화를 알고 대처해야 하지만 외부환경의 알고 대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한데 뭉쳐야 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대책 역시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이다.

최소한 우리 지역문제에 관한 한 적극적인 참여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참여가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의 행복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교통조합' 만든다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위해 조합 내년 1월 출범

서울시,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대중교통조합을 내년 1월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수도권대중교통조합은 대중교통요금구조와 환승할인제도, 광역버스노선조정은 물론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환승시설과 간선급행버스(BRT) 계획및 집행.건설업무를 맡게 된다.

경기,서울,인천 등 3개시도 교통관련국장은 25일 서울시에서 '수도권교통조합 설립운영계획안' 관련회의를 열어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중교통조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1년 구독료 48,000원
사 훈: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편 집 국 (031)542-9776
기 사 제 보 (031)542-9888
광 고 접 수 (031)542-9889
구 독 신 청 (031)541-9115
F A X (031)541-911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 호 열
편 집 인 구 봉 주
편 집 국 장 김 영 복
인 쇄 인 김 규 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